

< 양식 2 : 작성서식 >

제 목	바깥 제철 풍경, 로맨스의 애뜻함 그리고 타인의 다정함을 태운 바로타
-----	--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반석동 주민으로, 2015년 1월에 ‘990번’이라는 이름의 빨간색 버스로 BRT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대외활동 면접을 보기 위해 반석역에서 해당 버스를 탔지요. 지금은 매우 친숙한 세종시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소하고 낯선 도시라서 제가 사는 곳인 반석동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환승 없이 단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잘 이용했고, 덕분에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지금까지 쪽 반석동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의 B2와 함께 새로운 B4도 만나며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차가 생겼지만, 효율적이고 편리한 BRT와 꾸준히 제 일상을 함께하며 다양한 추억들을 쌓아왔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단 2페이지로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경험한 순간들을 ‘바로타’의 한 글자씩에 기대어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 : 바깥 풍경 감상 맛집! 제철을 느끼게 해주는 BRT

저는 서울이나 타 지역을 KTX 혹은 SRT를 이용해서 가야할 때,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으로 가는 것보다 B2나 B4를 탑승해 오송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밖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지하철과 달리 창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BRT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쾌적하게 BRT 전용도로를 달리며 감상하는 사계절의 조각들은 저만의 특별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출퇴근의 반복 속에서 계절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은데, 잠시나마 BRT의 창문으로 바라보는 제철 풍경은 제철 음식만큼이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오송역으로 향하는 길은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미호강 주변의 웅장한 자태의 벚꽃나무를 보고 있으면, ‘소설 <빨간 머리 앤> 속 앤이 매튜 아저씨를 따라 가는 길에 쏟아지던 벚꽃 풍경이 바로 이런 걸까?’라며 기분 좋은 상상의 세계에 진입하곤 합니다. 요즘 풍경도 BRT를 통해 만나고 있는데요, 역시 계절의 여왕인 5월답게 녹음 짙은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익숙한 도로들 위로 각 계절별의 아름다움 덧대어질 때, 스마트폰을 잠시 무릎 위에 놓고 멍하니 풍경을 감상하게 됩니다.

로 : 로맨스를 담은 애뜻한 우리의 BRT

저는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5년 만난 남자친구는 현재 수도권 거주 중으로, 한 주를 성실히 살아낸 다음, 그 주 주말에 KTX를 주로 이용해서 각자 사는 지역에서 만나곤 합니다. 제가 오송역으로 가거나, 남자친구가 오송역에 내려서 세종시로 데이트를 하러 올 때마다 BRT를 이용하다 보니, 저희 둘 다 BRT를 매우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로맨스의 역사만큼, 함께 BRT를 이용한 시간도 깊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 주로 ‘정부세종청사북측’ 정거장에서 만나는데요, 근처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하고 정거장에서 남자친구가 타고 올 BRT를 기다릴 때면 변함없이 언제나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오송역에서 탑승한 버스가 B1인지 B2인지 혹은 B3인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고, 해당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이나 남았는지 세고 있을 때부터 우리의 데이트는 시작됩니다.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덕분에 지체 시간 없이 딱딱 도착해주는 BRT로 인해 우리의 헤어짐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아쉽게 정거장에서 헤어짐을 나눌 때에도 제 시간안에 안전하게 오송역으로 향할 BRT가 있어서 큰 안심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주는 BRT가 든든합니다. 돌아보면 장거리 연애가 결코 쉬운 영역은 아니지만, 물리적 한계가 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BRT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이제 저희는 장거리 연애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에도 도로에서 BRT를 보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에게 데려다 주던 BRT에 대한 고마움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타 : 타인의 다정함을 만나는 친절한 BRT

소위 ‘인류애’ 라고들 하지요. 저는 BRT를 타면서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며 인류애를 ‘만땅!’ 채웠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지역 출장이 종종 잡혀서, 이로 인해 오송역을 갈 때 노트북 가방을 안고 BRT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서 이동할 경우 앉아 계신 승객분들 가운데 제게 먼저 노트북 가방을 달라고 하시고 감사하게도 본인 무릎에 놓으시곤 합니다. 짧은 이동 거리이지만 타인의 친절함,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의 여운은 깊이 일상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반대의 상황에서 저 역시 주저하지 않고 먼저 “괜찮으시다면 제게 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친절한 기사님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4를 처음 이용할 때, 오송역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전 기사님께 “반석역으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밝게 “네! 그럼요! 타세요!” 라고 알려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저처럼 물어보고 탑승하는 승객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하는 분의 다정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버스를 보다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탑승 노선을 기억하는 여정 속에서 기사님들의 친절함은 작지 않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친절함 기사님들 덕분에 BRT 탑승이 어렵거나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 깔 제철 풍경과 ‘로’ 맨스의 애뜻함 그리고 ‘타’ 인의 다정함을 태운 BRT에 대한 저만의 특별한 기억 조각들을 한 번 나눠 보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대중교통의 일부일 수 있겠으나,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BRT가 있어서 제 일상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가슴 한 켠에 간직하고 있던 BRT의 감사한 소중함에 대해 더 이야기할 자신도 있지만, 앞으로 BRT와 함께 펼칠 내일의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우선은 마침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